

롯데기공, 화려한 신제품 라인업

시장 활성화 주도할 3종류 신모델 선보여

롯데기공의 봄맞이가 심상찮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신제품을 무려 3종류나 시장에 선보인 것. 제품 라인업도 화려하다. 디자인에 있어서나 제품 성능에 있어 기존 제품보다 한 차원 경쟁력을 높인 원두커피자판기, 커피자판기, 커피·캔 복합자판기를 선보였다. 침체된 자판기 산업에 있어 활력을 주도할만한 야심에 찬 제품군이다.

이번 신제품들의 공통적 컨셉을 살펴보면 우선 디자인 개선이 눈이 띈다. 강렬한 원색 톤도 채택하여 디자인이 화려해졌다. 기존 제품군보다 집객효과가 높아지고 주변환경과도 잘 조화될 수 있게 했다.

기존 제품들이 과거 삼성광주전자의 디자인에 뿌리를 두었다 한다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처음으로 롯데 디자인을 도입한 제품군으로 볼 수 있다. 롯데기공의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들은 디자인의 롯데화를 실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출시되는 신제품들도 이런 디자인 차별화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의 다른 특징은 모듈화 설계로 주요 기능 부품 공용화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히타탱크, 컵디스펜스, 캐니스터, 도어부 외관부품 등을 공용화했으며, 콘트롤부 PCB 등도 공용화했다. 이로 인해 A/S가 용이하고 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컵도어의 볼륨감을 높인 점도 공통적 특징이다. 반라운드형의 컵도어를 채택하여 디자인도 뛰어나고 날과리 등의 이물질 유입이 차단될 수 있게 했다.

프리믹스 기능추가 통해 뛰어난 맛을 구현한 원두커피자판기

이번에 선보인 원두커피자판기(모델명:LVM-6140KB)는 기존 원두커피자판기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보완해 맛과 성능에 있어 뛰어난 경쟁력을 자랑한다. 먼저 원료량 설정만으로 프리믹스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재료의 배합을 통해 운영자가 맛을 차별화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원두커피자판기가 원두용 프림과 인스턴트 프림을 공용으로 사용해 인스턴트커피 맛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개선이 되었다. 원두용

프림과 인스턴트 프림을 따로 쓸 수 있게 해 인스턴트 커피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수평적 믹싱볼을 수직적 믹싱볼로 개선하여 원두커피의 거품이 많이 날 수 있게 해 맛을 배가했다. 웰빙을 위해 설탕을 가감할 수 있는 선택 기능도 갖추었으며, 풍부한 양의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9온스컵 채움이 가능하다. 원료설정을 리모콘 외에도 노트북이나 PC로도 할 수 있으며, 컷잔온도를 78℃까지 나올 수 있게 했다. 부가 기능으로는 선불카드시스템의 장착이 가능하다. 판매 음료는 원두커피 5종, 차3종, 인스턴트 4종 등 12종류에 이르며, 컵수용량은 6.5온스 400개, 9온스 300개까지 가능하다.

롯데기공은 경쟁력있는 원두커피자판기가 출시가 됨에 따라 본격적인 OP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대형 OP업체들이 커피자판기 신규 및 대체수요를 원두커피자판기로 전환하는 있는 점이 시장호재이다.

5개 제품을 섞을 수 있어 다양한 맛의 구현이 가능한 인스턴트 커피자판기

원두만 버전 업이 된다면 인스턴트커피자판기가 접할 것이다. 롯데기공은 인스턴트커피자판기(모델명:LVM-6112KB)도 성능 향상을 위해 무한한 애정을 쏟아 부었다. 이번에 출시된 인스턴트커피자판기는 다양한 맛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기존 제품이 커피, 설탕, 프림 등 3믹싱이 가능했지만 이번 신제품은 5개의 제품을 믹싱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모카치노, 카페레테 같이 일반 인스턴트에도 원두의 맛이 가능해 졌다. 판매음료는 까페라떼, 카푸치노, 모카치노 등 고급커피 4종, 일반



커피 4종, 일반차 4종 등 12종류에 이르며, 5단계 설탕 가감 기능을 통해 맛 조절이 가능하다. 컵은 6.5온스 경우 600개 저장이 가능하고 9온스는 500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도 노트북으로 세팅 값의 설정이 가능하며, 원료설정을 리모콘 외에도 노트북으로 할 수 있다. 부가기능으로는 선불카드시스템의 장착이 가능하다.

PET 4종, 캔5종 등 냉음료 판매기능 강화한 복합자판기

이번에 출시한 복합자판기로 인해 기존에 사용되던 커피·캔 복합자판기 용어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신제품은 캔이외에도 PET음료까지 판매 가능한 것이 특징. 따라서 용어를 커피·냉음료 복합자판기로 변경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이처럼 이번 출시한 LVM-6410KB는 국내 복합형 자판기 계보에 있어 신개념 자판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휴대하면서 마실 수 있는 PET음료를 판매할 수 있어 운영 수익성 향상에 있어 기존 제품보다 유리하다. 또 PET, 캔 합해 9종류까지 판매를 할 수 있어 실속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냉음료 판매기능을 확대하면서도 커피판매 종류도 줄이지 않았다. 커피 4종, 차 2종 등 총 6종류로 기존 복합형과 차이가 없다. 총 음료선택 버튼 수가 16개에 이르고 컵수용량은 6.5온스로 기존 제품에 비해 오히려 100개가 늘어났다. 상품별 버튼 배열을 임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프리믹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실속을 강화한 LVM-6410KB는 중소형 OP업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